

전통의 지속과 변형에 주목

「한국문학통사」 다섯째 권

趙東一
서울대 교수 · 국문학

다섯째권까지 대충 헤아려보니 작가 2천, 작품 5천 정도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일관된 흐름과 흥미로운 서술을 갖추려 하니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한국문학통사」라는 이름의 문학사를 네 권을 냈고, 두 권을 더 낼 작정이다. 역사의 여명기에서 오늘날까지의 문학을 구비문학, 한문학, 국문문학을 두루 포괄해 자세하게 다루려하니 일이 많다. 조상이 물려준 유산이 풍성하고 오늘날의 작가들이 열심히 창작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업적이 엄청나게 쌓여 헤어나기 어렵게 한다. 그럴수록 정신을 차려, 우리 문학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오늘날 재인식해야 할 어떤 의의가 있는가 정리하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지만, 여럿이 나누어 하면 그 누구도 전모를 알지 못해 해매고, 또한 손발이 맞지 않아 전체 줄거리가 흔들릴 것이다.

몇 해 동안의 준비와 초고 작성을 거쳐 첫권을 1982년에 냈다. 둘째권은 1983년에, 세째권은 1984년에 내서, 그때까지는 1년 터울이었다. 네째권은 1986년에 내고, 다섯째권은 이제 교정을 보아 넘겨 금년 2월경에 나올 것이다. 네째권까지 책 면수가 모두 2천면 정도이고, 원고 분량으로 치면 1만매가 넘는다. 소설이라면 그보다 긴 것이 여럿 있지만, 학술서적 치고는 드물게 보는 장편이다. 관심 있는 자료를 자세하게 살펴 길게 쓰기보다는 빠진 것이 없도록 유의하면서 연구성과를 집약해야 하니 들어 있는 내용은 겉보기 보다 많다. 총색인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대충 헤아려 보니 다섯째권까지 작가 2천, 작품 5천 정도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고유명사 열거를 피해 일관된 흐름과 흥미로운 서술을 갖추려 하니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곧 나오게 될 다섯째권은 1919년 삼일운동에서 1945년 광복 이전까지의

일제강점기의 문학을 취급했다. 그 시기의 문학사는 현대문학사라면서 이미 몇가지 나와 있으나, 고전 문학과 연관 중요시한 점이 우선 달라졌다. 전통의 지속과 변형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서양문학을 이식하려 했던 시도도 전통과의 관계에서 검토하고 평가했다. 세째권에서 조선후기문학을, 네째권에서 1860년대에서 삼일운동 이전까지의 문학을 다루면서 둘 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문학이라고 했다. 이행기 동안에 자생적으로 준비된 근대민족문학이 일제와의 대결을 통해서, 서양문학의 침투와 자극을 겪으면서 어떻게 발전되고 어떤 점에서 좌절을 겪었는가 살피는 것이 다섯째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고전문학과 관계, 전통 계승을 그런 문제의식에서 살피려고 했다.

광복후의 남북분단 때문에 그 이전의 문학사마저 둘로 갈라진 것은 커다란 비극이다. 비극을 극복하자면 우선 1945년 이전의 문학사라도 하나로 합쳐 써야 하는데, 다섯째권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려 했으나 만족스럽지 못함은 물론이다. 지금 구상단계인 여섯째권에서는 분단의 비극을 치유하는 더욱 큰 기초공사를 해야 마땅한데, 그럴 수 있을까 염려된다. 또한 읽어야 할 작품이 너무 많아 괴롭다. 문학사 서술이 현대로 올수록 힘들다는 것을 거듭 절감하고 그 중압 때문에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고려시대 천민계층에 초점

새 연재소설 「禾尺」

金周榮
소설가

이 소설은 고려 의종 때 무인반란에서부터 시작되어 몽고의 침입까지 80여년간의 역사를 무대로 쓰여진다. 소설이란 결국 '고향이 이야기'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꼬박 1년 동안을 쓰는 일보다 읽고 찾아내는 일에 몰두한 셈이다. 읽은 것은 고려시대를 중심으로한 경제, 정치, 풍속에 관한 논문집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그 시대의奴婢와 賤民들의 생활사들을 읽고 발굴해 왔다. 그러나 모든 역사자료들이 대부분 정치사를 중심으로 기술한 것들이어서 그들의 생활사를 찾아내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었다. 시간과 노력을 비한다면 소득은 보잘것이 없었지만 그런대로 만족할 만했었다.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쓰기 시작한 작품이 지금 한국일보에 연재가 시작되고 있는 「禾尺」이다.禾尺은 楊水尺 혹은 水尺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白丁의 전신으로, 고려시대 때 이들 천민집단이 興化雲中道の 압록강변에 살고 있었다. 이들 집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0여년 전이었지만, 워낙 자료가 빈곤했었던 터라 감히 작업에 착수할 엄두가 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崔忠獻이나 萬積과 紫雲仙이란 妓女를 통해서 소설의 골격을 엮어낼 수 있었기에 쓰기에 착수한 것이다.

이 소설은 고려 18대 임금이었다 毅宗 24년의 武人反亂에서부터 시작되어 몽고의 침입까지 80여년간의 역사를 무대로 쓰여진다. 무인정권이 계속되는 동안 이들 천민계급들이 권력의 중심부에 진출해서 정치사를 바꿔놓는 일에 어떤 구실과 작용을 했던가를 나름대로 기술해보려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들이 이 역사에서 얻어내는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문제들을 탐구하는데도 게을리하지 않을 작정이다.

두번째로 쓰고 있는 것은 지금 계간 「세계의 문학」에 연작형식으로 쓰고 있는

성장소설이다. 이 소설은 지금 2회가 쓰여졌는데, 자전적인 냄새가 짙은 것으로 필자의 어린 시절에 겪었던 추억을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 작품은 소설이 가지는 구성의 묘미보다는 산문적인 기술형식에 가까운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 어떤 작가와의 대담에서 우리는 소설이란 결국 고향이야기라는 결론에 다같이 동의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부터 출발하고 그곳으로 귀결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대체로 동의한 것 같다. 지금까지 필자가 써온 모든 소설들이 사실은 '고향이 이야기'란 범주와 틀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느낌은 강하다. 6백년 전의 역사소설이든 지금 당장의 이야기든간에 가만히 헤집고보면, 그것은 고향에서 겪었던 느낌과 감수성과 지식을 모두 담고 있기 마련이었다. 소설이 인간의 역사를 탐구하는 것이라면 인간의 그 고향을 저버린 상태에선 이야기될 수 없다는 것도 동의해야 할 것 같다.

이 두편의 소설을 이어나가자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이들 소설도 필자의 50대가 반넘어나 탕진될 것 같은 조짐이다. 이 중요한 50대의 나이들을 한편의 소설에 탕진하고 나면 과연 내겐 무엇이 남겠는가하는 허탈이 지금부터 자꾸만 필자를 잡아흔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시 곰곰이 생각을 정리해보면, 필자의 50대에 소설을 쓰는 작업이 아니면 열정을 불태울만한 다른 어떤 일인들 몰두할 것이 없고, 그만큼 가치있는 일도 벌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